이베로아메리카 제4집(2002년)

평등한 사랑 -이사벨 아옌데의 두 작품을 중심으로

박 종 탁*

1. 들어가며

이사벨 아옌데(칠레. 1942 ~)의 단편소설 「만약 네가 내 심금을 울려 줄 수 있다면」[1]은 실화를 각색한 픽션이다. 작가가 베네수엘라에 거주할 때(1975-1987), 그곳 신문에 난 사건으로서, 어떤 여자를 질투심 많은 애인이 지하실에 50년 동안이나 감금해 놓았다. 그녀를 구출해보니 눈먼 괴물 같았다. 손톱과 발톱은 야수처럼 되었고, 온 몸은 비늘로 덮였으며 인간의 언어는 상실한 상태였다.[2] 그야말로 엽기적인 사건이지만, 어쩌면 숱한 남성 폭력의 목록에 비추어 보면 대단한 사건이 아닐 지도 모른다. 가령, 오늘날의 지구촌에서 남편의 손에 맞아 죽는 아내가 상당한 수효에 이른다는 보도를 접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며, 유럽공동체 국가 내에서도 이런 일은 드물지 않은 실정이다. 여자가 지참금을 가지고 시집을 가는 인도에서는 전형적인 가정 폭력이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젊은 아내에게 느닷없이 가솔린을 쏟아 붓고 산 채로 화장을 하는 것이

* 부산외대 스페인어과 교수

1) 원제는 「Si me tocaras el corazón」로서, '당신이 내 마음이란 악기를 울리게 해 준다면 (얼마나 좋으랴만은)'의 뜻으로 쓰였고, 『Cuentos de Eva Luna』(Plaza & Janés Editores, S.A., 1989)에 수록된 작품임. 우리말 번역본은 필자의 홈페이지 http://domingo.pe.kr의 <작품감상>에서 볼 수 있다.

2) Celia Correas Zapata, 『Isabel Allende - Vida y espíritus』, Plaza & Janés, Barcelona, 1998. p.111

다. 번거롭게 이혼을 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새로운 여자를 맞아 지참금을 차지하지만 경찰이 상관하지 않으니 이런 일이 빈발한다고 한다.[3)]

같은 작가의 장편소설 『에바 루나』(1988)는 특정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나, 역시 오늘날의 세상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어떤 일을 다루고 있다. 그것은 여성의 선택에 관한 것으로서, 여성 편에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것이거나, '황홀한 반란'일 수 있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철없는 아내'로 비쳐지거나, '모자란 여자'의 이해할 수 없는 선택으로 비쳐지곤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애인이 군대 간 사이에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가는 것에서부터 '황혼이혼 바람'까지 포함해야 할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작품은 A라는 남자를 사랑하던 여주인공이 B라는 남자인물과 결혼한다는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 요즘 남녀간의 만남과 이별, 결혼과 이혼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여성의 변화된 의식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다.

오랫동안 여성은 굴종의 삶을 살아왔다. 여성 개인의 저항은 사회가 용납을 하지 않았다. 남성은 사회의 확고한 주도권을 잡고 조직적으로 여성을 착취하고 억압하였다. 민주주의의 도입과 발전에 따라 만민이 평등해졌다지만, 여성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아직도 차별과 손해를 감수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지만, 20세기 후반 페미니즘 운동이 고개를 든 이래 여성은 억압에 대해 굴종하는 대신 저항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느낌을 주는 '저항'을 넘어서 그냥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에는 마음에 안 들어도 결혼을 꼭 하려 들었고, 문제가 있어도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서슴없이 독신을 택하거나 미련 없이 이혼을 하는 여성이 많다.

---

3) 이사벨 아옌데가 직접 예로 든 것이다. 앞의 책, p.102

이런 면에서, 위의 두 작품은 각각 전근대적 여성의 삶과 현대적 여성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들을 중심으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추출함으로써 바람직한 남녀관계와 인간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바람직한 관계,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를 맺는 것은 인생의 의미를 성취하는 것이자 큰 축복이 될 것이다.

2. 착취와 굴종 -「만약 네가 내 심금을 울려줄 수 있다면」

이사벨 아옌데가 신문 기사를 작품화한 것은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흥미를 넘어 이것을 보편적인 남성 폭력-권력의 예로 형상화할 수 있겠다고 본 것이다. 악역을 맡을 남주인공의 이름은 아마데오 빼랄따, 희생자가 되는 여주인공은 오르뗀시아이다.[4] 줄거리를 보자면, 아버지로부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도록 교육받은 32세의 아마데오는 사업차 시골에 갔다가 우연히 비파를 켜는 15살의 오르뗀시아를 보고 즉석에서 능란한 솜씨로 유혹을 하여 관계를 맺고 까맣게 잊는다.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녀는 일주일 후 도시에 사는 그의 앞에 나타난다. 못생겼지만 가문은 좋은 집 딸과 혼인을 올려야 할 판이고, 거저 굴러온 떡을 놓치기는 싫어 폐허가 된 설탕공장 지하실에 가두고 열정적인 육체의 향연에 빠진다. 한 달 후 싫증이 나자 차츰 발길을 끊고, 대신에 과묵한 인디오 여자를 관리인으로 고용하여 겨우 굶어죽지는 않게 한다. 그렇게 47년의 세월이 흐르는데, 아마데오는 온갖 부정한 방법을 통해 부와 권력을 거머쥔 세도가로 떵떵거리며 살아 왔고, 오르뗀시아는 완전한 어둠의 영역 속에서 웅크린 채 환상만을 먹고산 지하생물이었다. 어느 날, 학교를 땡

4) 아마데오는 라틴어 Ama 와 deo(= deus)의 결합형으로서 '신의 사랑'이다. 여러 작품과 고백으로 미루어 작가의 반(反)카톨릭 정신이 나타난다고 보인다. 오르뗀시아(Hortensia)는 수국(水菊)이란 꽃을 가리킨다.

땡이 친 개구쟁이들이 폐허가 된 건물 지하실에서 나는 소름끼치는 비파 소리를 확인하고 엄마들에게 달려가 소란을 피운다. 할 수 없이 엄마들이 몰려와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지하세계의 인간을 확인하게 되고, 이어 남정네들이 와 출입구를 부수고 오르뗀시아를 구출해낸다. 매스컴에 이 사건이 보도가 되자, 분개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아마데오를 집에서 끌어내고 경찰은 그를 구속한다. 오르뗀시아는 매일 아침 아마데오에게 따뜻한 물병을 넣어주고 감옥 담장 너머로 단말마의 비명 같은 비파 연주를 들려준다. 비열한 인간의 상징이 된 아마데오는 감옥에서 웅크리고 앉아, 힐난하는 듯 신경을 후벼파는 그 소리를 통해 가책을 느낄 뻔하지만 끝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암흑 속에서 사라져 간다.

언뜻 보면, 아마데오나 오르뗀시아나 다 상당히 비정상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실제 있었던 일이라서 뿐만 아니라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인물들이기도 하다. 아마데오처럼 여자들을 유린하거나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삼고, 사업에 있어서는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빼앗으며, 뇌물과 향응으로 매수하고, 불법과 투기와 온갖 협잡질로 부를 축적한 후 정계에도 발을 들여놓아 사회의 지도층으로 행세하는 자들의 얘기는 널려 있다. 이들에게 양심이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을까?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들에겐 힘이 정의이다. 법과 윤리는 이들의 농간 하에 지배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약자는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 착취와 유린의 대상일 뿐이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겐 이런 성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별히 악인은 아니라도 오랜 동안 남성은 당연한 듯 여성을 지배하고, 여성은 굴종의 삶을 살아왔다.

그렇지만 아마데오가 한때나마 사랑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닐까? 여기에 대해 작가는 착각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다:

처음 몇 주 동안 아마데오는 지하실에서 그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 보냈다. 아무리해도 고갈이 되지 않을 것처럼 그의 정욕은 불타올랐다. 사람들이 그녀를 발견할까 두렵고, 자신의 눈까지도 질투가 나서, 그녀를 자연광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다. 빛이라곤 환기창을 통해 들어오는 한 줄기 엷은 광선이 전부였다. 어둠 속에서 둘은 시시덕거리며 모든 감각을 난잡하기 짝이 없게 풀어놓았다. 피부는 달아올랐고 심장은 허기진 가재로 변했다. 거기엔 온갖 냄새와 미각이 최고의 가치였다. 어둠 속에서 살을 부비며 서로의 진수를 뚫고 들어갔고 가장 은밀한 욕구 속으로 잠수를 하였다. 그곳에선 그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는데, 벽들은 말소리와 키스를 증폭하여 되돌려주었다. 지하실은 봉인된 유리관으로 변하였고 둘은 양수 속을 헤엄치는 장난꾸러기 쌍둥이처럼, 아니 덩치가 큰 두 아기처럼 넋이 나가 뒹굴었다. 둘은 한 동안 완전한 친밀감 속으로 길을 잘못 들어 사랑이란 것과 착각을 하고 있었다.

쾌락의 반복은 친밀감을 가져오지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순 없다. 돈을 사랑하고, 술을 사랑할 때도 그것을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부르진 않는다. 사랑은 상호성, 인격성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윤리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인격의 교류 없이 열정만을 수반한 육체의 사랑을 작가는 '착각'으로 본 것이다. 이 착각이 어떻게 귀결되는지 보자:

> 오르뗀시아가 잠이 들면 아마데오는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갔다가 그녀가 깨기 전에 돌아왔다. 그리곤 다시 원기가 솟구쳐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렇게 욕망에 지쳐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맞붙은 횃불처럼 타오르며 서로를 집어삼키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그 반대로, 아주 흔히 예견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아주 평범하고 대단히 시시한 그런 일 말이다. 한 달이 되기 전에 아마데오 뻬랄따는 그 장난에 싫증이 났는데, 왜냐하면 다시 그 짓을 하려고 하면 관절 마디마다 습기가 갉아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동굴 바깥의 일들이 자꾸 생각나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로 돌아가 자기 운명의 고삐를 붙잡을 시간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오르뗀시아는 너무나 심약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착취를 당하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노예처럼 매인 여자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런 타입의 여자가 적지 않았던 것은 무엇보다 경제력이 없는 데다가, 교육을 받지 못한 탓, 소박맞은 여자에 대한 사회의 멸시 등이 컸기 때문이다. 약자 앞에 더욱 잔인해지는 폭군으로서의 남성에게 일상적인 핍박과 구타를 당하며 산 여자들의 얘기는 얼마나 많았던가.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버림받더라도 놓임을 받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오르뗀시아는 감금을 당한 상태에서 버림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감금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갇힌 것이다. 그야말로 최소한도로만 연명할 수 있도록 돌본 인디오 여자는 오르뗀시아가 갇혀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무리가 아닐지도 모른다:

> "그 불쌍한 여자가 가엾지도 않았습니까?" 유괴의 공범 혐의로 인디오 여자도 체포하여 이렇게 물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고, 다만 대담한 눈초리로 정면을 쏘아본 다음 담뱃진으로 새까매진 가래를 탁 뱉았다.
>
> 정말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노예의 근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니면 원래 천치바보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보다 갇혀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
> 오르뗀시아 역시 인디오 여자 간수가 가진 생각을 바꾸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다. 세상에 대한 눈곱만치의 관심도 나타내질 않았고, 맑은 공기를 쐬러 나가보려고 하지도, 무엇에 대해 불평을 하지도 않았다. 지겨워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정신은 유년기의 어떤 순간에 사로잡혀 있었고, 고독이 그녀의 정신을 완전히 헝클어놓았던 것이다. 실제로 그녀는 지하 생물로 바뀌어져 갔다.

욕구와 권리를 주장하고 쟁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절을 당하면 움츠러들면서 자기 속으로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오르뗀시아는 '수국(水菊)'이란 꽃이다. 이름에서도 드러나듯 그녀는 봐주기를 기다리는 화초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이다. 용감하게 아마데오를 찾아왔으나 그것이 최대한의 용기였고, 벌침처럼 한 번 쓰고 나면 다시는 쏠 수도 없는 일회성의 용기였다. 사랑의 행위 중에 아기를 갖고 싶다고 자신의 바램을 드러내기도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면 다시는 요구하지 못한다.

한 번의 거절만으로도 자신감을 잃고 완전히 위축되기 때문이다.

> "여기서 기다려, 아가씨. 내가 밖에 나가 돈 많이 벌게. 선물이랑 비싼 옷, 보석을 많이 갖다 줄께." 떠나면서 말했다.
> "아이들을 갖고 싶어요." 오르뗀시아가 말했다.
> "애들은 안 돼, 대신에 인형 갖다 줄게."
> 그 후 여러 달이 지나도록 빼랄따는 의상과 보석과 인형들을 까맣게 잊었다. 생각이 날 때마다 오르뗀시아를 방문하였지만 언제나 그 짓을 한 것은 아니었고, 때때로 그녀가 비파로 옛 가락을 타는 것을 듣고만 있기도 하였다. 현을 뜯으며 악기에 몸을 기울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좋아하였던 것이다. 이따금 너무 바쁜 나머지 말 한 마디 나눌 시간 없이 물항아리나 채워주고 식량 보따리를 내려놓고는 사라지기도 하였다. 그걸 잊고 있다가 아흐레만에 들여다보니 그녀는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녀는 재차 요구하고 싸우거나 뛰쳐나가는 대신에 조용히 비파를 뜯고, 버림을 받으면 버려진 채로 시들어 가는 꽃이다. 남자는 그것을 즐긴다. 피지배자의 수동성과 굴종은 지배자를 만족시키고 지배를 강화시킨다. 약자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대항수단을 찾는 것이다. 험한 세상을 살려면 예수가 권고하듯이 뱀처럼 지혜로우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는 것이다.[5] 그러니,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심령이 미약하여 저항도, 홀로 서기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오르뗀시아가 가진 문제였고, 그런 상태에서 하필이면 첫 남자로 양순한 사람을 착취하고 악용하는 자를 만난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되었다.

그렇지만, 오르뗀시아는 정말 아마데오를 사랑한 것일까? 사랑했으니까 수소문하여 그를 찾아왔을 것이고, 그의 아기를 갖고 싶어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입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옥에 갇힌 아마데오를 매일 아침 찾아와 "그 사람은 나를 굶게 내버려 둔 적이 없다오." 하며 따뜻

5) 예수는 열두 제자를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이렇게 분부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개역성경, 마태복음 10:16)

한 물병을 넣어주고 소름끼치는 소리가 날지언정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그 증표가 아닐까? 감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사랑은 모순덩어리이므로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이유 없이 좋아지고 까닭 없이 싫어지고, 광기, 집착, 배신, 변덕, 증오, 맹종 등등이 다 어우러진 것이 사랑이니까. 그러나 좀 냉정하게 살펴보면, -작품에선 명시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암시적으로 작가의 부정적인 시선이 느껴진다. 즉, 앞에서 보았듯이 작가는 일시적 충동, 친밀감을 사랑과 구별하고 있다. 혐오스러운 착취와 굴종만이 있는 관계를 그 어찌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 혹은 사랑과 착각된 감정의 고착 혹은 심리적 중독이 발견될 뿐이다. 1970년대인가 스톡홀름의 어느 은행에서 중무장한 강도들이 난입하였을 때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공포 속에서 괴한들에게 심리적인 동조를 한 것을 '스톡홀름 신드롬'이라 하거니와, 강박적인 상황은 감정의 왜곡을 낳게 하곤 한다.[6] 공포에 잡아먹힌 격이다. 대체로 심리적으로 저항력이 약한 사람은 미운 자에게 묶인다. 사랑 혹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을 그 자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충격과 상처로 인해 사랑과 미움을 나누는 마음의 담이 허물어진 혼돈 상태에서 다른 사람은 자기를 복구해 줄 수 없다고 믿는 것일까.

그렇다고 하면, 오르멘시아에게 비극의 책임을 다 지라고 할 수 없다. 아마데오 같은 사랑의 불구자를 찾은 것이 잘못이고, 스스로 노예처럼 갇힌 것은 더 잘못된 것일는지 모르지만, 목숨을 걸지 않는 한 악당을 어찌 당할 수 있었을까. 불한당으로 자라나 지역 일대의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될 아마데오의 기질이 그녀를 암암리에 질리게 해 다른 선택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집단 전체도 그와 맞서질 못한다:

사람들은 그의 등뒤에서 누가 그의 희생자가 되었는지, 폐허 속에

6) 일부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수령에 대한 충성과 사랑도 그런 것의 일종이다.

> 몇 명이나 묻히게 했는지 혹은 사라지게 했는지, 관리들을 얼마나 매수했는지, 재산의 절반은 밀수로 얻은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이쯤해서 이 단편소설은 아마데오와 오르뗀시아 사이의 착취와 굴종 관계를 아마데오와 집단 사이의 그런 관계로 바꾸어 놓는다. 악에 맞서지 못하는 비겁한 군상이 드러난다. 작가는 민중도, 공권력도, 언론도 믿지 않는다. 사회 전체가 강자에게는 비굴하다. 무수한 부정과 불법, 공공연한 비밀을 감싼다. 아마데오 형의 인간이 생겨나는 것은 삶을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이해하고 약육강식을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교육 때문이다. 그리고 배금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는 '개같이' 벌어도 돈만 있으면 '정승같이' 쓸 수 있다. 그러니, 뻔뻔한 강자들을 추종하는 무리와, 엄청난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뭉쳐 대항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 목을 움츠리는 무리가 생긴다. 각자가 어디에 속하는 지 모른다면 아마데오의 아내나 인디오 여자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전자는 시집 못 갈까봐 사랑을 묻지 않고 악당가문도 가리지 않는다. 정당화할 수 있는 내적 동기도 명분도 없으나 결혼한 여자가 누리는 사회관습상의 지위를 얻기 위함이다. 후자는 인디오로서 소외된 계층이다. 그러나 그녀는 비참한 처지에 빠진 같은 인간에게 동정심도 인도주의도 베풀지 않는다. '그래 싸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알량한 우월감을 확인할 뿐이다. 그러나 그녀는 실제 아마데오의 공범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다. 오르뗀시아가 스스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도 자물쇠를 채워놓았기 때문에 그녀는 간수였던 것이고, 설령 적극적으로 어떤 짓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관련 당사자로서 인간 이하의 삶을 보고 방치하면 형법상의 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실제적으로나 심정적으로 가해자의 편에 서기가 얼마나 쉬운가.

그렇지만, 이 작품은 너와 나의 취약한 인간성에 대한 고발의 목적으로만 쓰여진 게 아니다. 결국에, 악은 징계를 받고 잘못된 권력은 뒤집힌

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약자에게 감춰진 힘이 발휘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작가는 학교를 땡땡이 친, -즉 제도를 약간 위반한-, 세 아동의 모험심과 순진함을 사건화의 단초로 잡고, 사랑하는 아이들의 아우성을 묵살하지 않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어머니들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맡긴다. 그녀들의 확인에 의해 몰려드는 군중, 구출하는 경찰과 소방대원들, 매스컴의 대대적인 보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정적들, 할 수 없이 그를 체포하여 법의 심판을 내리는 공권력은 상황에 떠밀린 파도일 뿐이다. 힘이 강할수록 기회주의적 속성을 지니게 되는 걸까. 실망스럽게도 세상의 정의는 역순으로 작동한다. 가장 힘이 없는 자가 가장 정의롭다는 모순. 그래서 세상엔 정의가 구현되기 힘들다. 작품은 마지막으로, "그토록 오랜 세월 그녀를 잊고 있었던 양심의 가책을 가라앉히느라 온 세상이 오르뗀시아를 떠맡겠다고 나서는" 세상 인심을 꼬집는다. 이런 아니러니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 철없는 아이들과 부드러운 여자들을 통해서도 바로 잡히는 일들이 있다. 이것은 소설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져 온 현실이다. 예를 들어, 1970~80년대 아르헨티나, 칠레 등의 무자비한 군사독재에 최초로 맞서고 그 거대한 권력의 댐에 구멍을 낸 것도 실종된 내 자식, 내 남편을 찾겠다고 나선 어머니들이었다. "오월 광장 어머니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7]

마지막으로, 오르뗀시아의 비파는 여성적 자질을 상징한다. 처음에, 아마데오에게 비파소리는 청량제였고, 육체의 열정이 식은 다음에는 여인의 아름다움이었다. 그러나, 한 여자의 몸을 정복하고 나면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듯이 관심의 대상을 옮기는 남자에게 비파는 약탈의 동기를 제공하고 유린될 뿐이다. 배신과 저버림 속에 비파는 울음소리가 되고

7) 군사 정권에 맞선 여성들의 활약상은 이순주, 「라틴아메리카 민주화 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증대」(『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 1집, 부산외대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1999) 참조 바람.

단말마의 신음소리로 변한다. 무언가가 남자에게 전달이 되고 이해가 될 듯 하지만, 끝내 그의 심금을 울리진 못한다. 어쩌면,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수십 세기나 되어도 여성적 자질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존중하지 못하는 남성 일반에 대한 비유인지도 모른다. '만약 네가 내 심금을 울려준다면' 얼마나 좋으랴만,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8]는 서로를 이해하거나 바꾸어 놓기엔 역부족인 모양이다.

3. 사랑과 투쟁 - 『에바 루나』

「만약 네가 내 심금을 울려줄 수 있다면」의 오르뗀시아가 막힌 길에서 장편소설 『에바 루나』의 에바 루나는 시작한다.[9] 오르뗀시아에겐 버림받은 곳이 인간으로서의 삶이 사실상 끝난 곳이지만, 에바 루나는 거기로부터 삶을 찾아 나간다. 그러므로 그녀에게는 파멸이 두려움이 될 수 없고, 죽음이 승리할 수 없다. 여주인공이 특출하기 때문이 아니다. 『에바 루나』에 나오는 약자들은 대개 승리하고, 그들은 대체로 여자다. 이제 약자가 강자라는 역설이 성립되는지, 아니면 소설 속의 백일몽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살펴보자.

에바 루나의 어머니 꼰수엘로는 천애고아였다. 진흙과 오물 범벅인 채 선착장을 기어다니는 걸 카톨릭 선교사들이 거두어 키웠다. 그녀는 열두 살 때 도시의 수녀원으로 보내졌고, 흰 피부 덕분에 수녀가 될 수도 있었지만 거짓 믿음보다는 하녀의 삶을 택한다. 사람 시체를 박제하는 존스 교수의 시중을 들며 살다, 어느 날 독사에 물린 인디오 정원사를 간

8) 존 그레이(김경숙 옮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친구미디어, 서울, 1993.
9) 장편소설이 일 년 먼저 나왔지만, 인물의 성격상으로 그렇다는 뜻이다.

호한다. 곧 죽을 사람을 위로[10]하려고 배 위에 올라탔는데, 그게 치료제가 되었는지 인디오는 살아서 떠나가고, 새 생명이 잉태된다. 어머니는 열심히 살라고 '생명'을 뜻하는 '에바'를 이름으로 짓고, 아버지가 '달의 후예들' 종족이라고 '루나'란 성을 붙여준다. 그녀는 딸에게 환상적인 얘기를 들려주길 좋아했지만, 닭뼈가 목에 걸려 여섯 살 난 에바를 남겨두고 죽는다. 그 집의 요리사인 대모가 에바를 돌보나, 과학자가 이듬해 죽자, 다른 집에 하녀로 팔고, 그때부터 반항기질 때문에 여러 집과 길거리를 전전하며 산다. 열여섯에 이미 알아주는 깡패가 된 우베르또 나랑호를 알게 된 덕분에 고급창녀 라 세뇨라의 집에 얹혀 살며 그녀와 여장남자 멜레시오 사이의 우정에 동참한다. 일제 소탕령으로 그들이 쫓기자 몇 달만에 그 생활도 끝나고 다시 길거리를 방황하는 신세가 된다. 터키 출신의 언청이지만 인품이 좋은 장사꾼인 리아드 알라비가 그녀를 구원해 아구아산따 마을의 자기 집으로 데려간다. 이때가 열세 살로 처음으로 글을 배우고 『천일야화』도 읽는다. 리아드를 아버지처럼 따르면서, 그의 마음이 병든 아내에겐 타고난 이야기 재주로 말벗이 되어준다. 이 년여의 안정된 생활은 리아드의 매력적인 사촌동생이 오면서 깨진다. 남편이 출장간 사이 아내는 사촌시동생을 유혹하고 에바는 육체의 광란을 목격한다. 그렇지만 시동생은 후환이 두려워 달아나고 리아드의 아내는 삶의 의욕을 잃고 이 년 후 권총자살을 한다. 현장을 치우다가 에바는 살인혐의로 경찰에 끌려가 발가벗긴 채 고문을 당하는데 리아드가 돈을 써서 구해낸다. 그렇지만 둘만 남게되자 이번엔 마을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리아드는 에바의 장래를 위해 떠나보내려고 한다. 그녀는 감사의 표시로 언청이 입에 키스를 하고 나아가 황홀한 첫경험까지 한다. 에바는 홀로 설 것을 결심하고 리아드가 안전한 곳이라고 소개해준 주소를 창밖으로 버린다. 그녀는 성전환 수술 후 유명한 탤런트로 변신한 멜레시오를 다시 만나 같이 살며, 낮에는 군복 공장을 다니고 밤에는 글을 쓰

10) '꼰수엘로'는 '위로'란 뜻이다.

며 작가의 꿈을 키운다. 이번엔 게릴라 대장이 된 우베르또와 운명적인 사랑을 하고 그의 수감된 동지들을 탈옥시키는 작전에도 가담을 하지만, 에바와 맺어져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다. 폭군과 같은 아버지 루카스 까를레로 인해 대서양 건너에서 불행한 삶을 살았고, 남미로 건너와 사진기자로서 끔찍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살았지만, 사려 깊은 눈과 부드러운 성격을 잃지 않은 롤프 까를레가 그이다.

가능한 짧게 요약한 줄거리에 많은 인물들이 빠져 있지만, 언뜻 보아도 주요등장인물들은 밑바닥 변두리 인생들이다. 주인공은 혼혈의 사생아이자, 여자에, 고아이며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이 일곱 살부터 하녀생활을 시작한다. 거기다 반항기는 있어 걸핏하면 쫓겨난다. 만나는 사람들도 평생 고생하며 비참한 삶을 산다. 그러나 그건 거죽일 뿐이고, 선입견일 따름이다. 줄거리 소개에 빠진 인물들을 불러와 좀 괜찮은 인물들을 등장시켜보자. 선교사들, 개신교 목사, 수녀원장, 최고통치자, 장군들, 장관들, 경찰서장, 교사, 교수, 주인 여자, 주인 남자, 아버지들 등등. 그런데 이들은 선망의 대상이나 본보기가 되질 못한다. 오히려 철저히 풍자와 비판의 대상이다. 이들의 편협한 사고, 완고성, 이기주의, 무자비하고 냉혹함, 위선, 탐욕, 교활성 등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이런 면에서 이 작품은 확실히 피카레스크 소설의 전통을 잇는다. 불우한 환경 때문에 비뚤어진 눈으로 보기 때문일까, 세상엔 가진 자, 행세하는 자, 배운 자들이 더 질이 낮더라는 얘기 말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스페인의 영화감독 뻬드로 알모도바르의 최근 몇 작품, 가령,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이나 <그녀에게 말해봐>에 더 닮아 있다.[11] 이들 영화에선 변태성욕자 · 미혼모 · 에이즈로 죽는 수녀 혹은

11) 앞의 영화 <Todo sobre mi madre>는 1998년 작이며, 뒤의 <Hable con ella>는 2002년 작이다.

저능아 등이 진정한 형제애와 인간미를 지닌 모범 인생이다. 이 영화들을 보면서 정상인들이 부끄러워지고, 주류사회의 경직성이 조롱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들의 문제이고, 초점은 누구라도 타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으면 참 인간이 된다는 메시지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처럼, 에바 루나, 그리고 그녀와 가까운 사람들이 지닌 첫 번째 공통점은 따뜻한 인간애이다. 꼰수엘로가 죽음 직전의 인디오 정원사를 위로해주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듯, 일곱 살의 에바 루나는 자진하여 괴팍한 과학자를 보살펴 평화로운 죽음을 맞게 해준다. 과학자는 방문한 개신교 목사에게 자신의 모든 과학적 업적보다 이 소녀가 자신에게 더 소중하다고까지 말한다. 언청이라서 평생 입을 가리며 살았고 교만한 아내로부터도 키스를 받지 못한 리아드에게 에바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키스를 바친다. 그 답례처럼 리아드는 그녀에게 짜릿하고 즐거운 섹스를 경험하게 해준다. 멸시를 받아도 끊임없이 사랑을 주는 리아드는 같이 누리는 섹스를 위해 성희를 연구해두었던 것이다. 여느 남자들이 자기 위주의 쾌감과 배설에 그치거나, 정복욕을 채우는 섹스를 하는 것과 대조가 된다. 평생을 가족도 없이 남의 집에서 뼈빠지게 일하느라 죽는 것밖엔 소망이 없어 매일 관 속에 들어가 잠을 자지만, 에바를 친손녀처럼 귀여워해주고 끊임없이 격려해주는 요리사 엘비라, 천박한 직업을 영위하지만 조그만 일에도 잘 웃고, 상냥하며 매혹적이고, 인정도 많은 라 세뇨라, 호모자식이라고 아버지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뭇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지만 자기 속의 여성을 억누르지 않고 여성으로 살며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멜레시오, 아버지에 대한 원한 때문에 증오심으로 똘똘 뭉친 악인이 되기보다는 자신보다 심한 공포에 떠는 백치 누이를 돌보는 롤프 등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은 쉽게 친구가 되고, 서로간에 깊은 교감을 나누며, 순수하고 헌신적인 관계를 맺는다. 겉으로는 헐벗었으나 영혼이 풍요로운 이들의 삶을 어찌 싸구려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무가치하다고 하랴.

이 소설은 또한 에바 루나의 성장 과정을 순차적으로 기록한 성장 소설이다. 따라서 교훈성을 다분히 지니는데, 가장 강조되는 교훈은 '인생은 투쟁'이라는 것이다. 항상 침묵하며 살아오던 꼰수엘로가 처음으로 주인의 명령 -독사에 물린 인디오 정원사를 박제로 만들려고 한- 에 불복종한 결과로 에바 루나가 태어났고, 에바 루나는 아홉 살 때 심술궂은 주인 여자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뿌리 채 잡아 뽑고 달아난다. 나중에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주인은 더 이상 꼬마 싸움꾼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엘비라는, "좋아, 작은 새야. 다부지게 싸워야 하는 거야. 순둥이는 발로 차지만, 미친개에겐 아무도 덤비지 않아. 언제나 싸워야 해."(p.69)라고 용기를 북돋워 준다. 에바는 이 충고를 평생의 교훈으로 삼고 살아간다. 꼭 요강에 오줌을 누기 때문에 요강을 갖다바쳐야 하는 기벽을 지닌 장관 집에 가선 닷새만에 장관에게 머리부터 요강을 쏟아버리고 나온다. 굶어 죽어가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낯선 아저씨의 도움을 받으면 우선은 감지덕지 할 만도 하련만, 에바는 자기를 어떤 조건으로 데려가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물어두는 다부진 소녀이다. 노예의 비굴한 삶을 살기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무작정 뛰쳐나오던 에바가 아니던가. 다행히 리아드는 딸로 여기겠다고 대답하고 정말 그렇게 대해준다. 그것도 권위적이거나 간섭을 일삼거나 하지 않고 자애롭고 친구 같은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훨씬 뒤 군복 공장에서 일개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나라의 실권을 틀어쥔 로드리게스 대령의 식사 초대를 받는 이유도 시찰 나온 그를 감히 정면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에바가 선약이 있다고 거절을 하자 대령은 집으로 찾아온다. 비옥한 땅이 정복의 동기를 불러일으키듯이, 여자가 당당할수록 남자의 정복 욕구는 커지는 모양이다. 에바는 호화로운 요리를 드는 불편한 자리에 앉게 된다. 그녀는 천진스럽게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어 대령을 웃게 만들지만, 디저트가 나올 때는 평등한 관계인 것처럼 그의 삶에 대해 얘기해 달라고 주문하여 당황시킨다. 냉혹한 자라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그는 우아한 태도를 보여주었고, 식사가 끝나가면서 대령은 초대에 응해주어 감사하

다면서 에바가 무척 재미있는 여자라고 추켜세우고 또 만나자고 한다. 그러나 에바는 결코 '쉬운 여자'가 되지 않는다:

"감사드려야 할 사람은 저예요, 대령님. 전 여기 처음인데 정말 멋진 곳이에요."
"이번이 마지막일 필요는 없어요, 에바. 다음 주에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왜요?"
"음, 서로를 더 잘 알기 위해..."
"당신은 저와 잠을 자고 싶은 거지요, 대령님?"
그가 포크를 떨어뜨렸고, 거의 일 분간 자신의 접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건 조금 천박한 질문이군. 그렇다면 천박한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소,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거요. 허락하는 거요?"
"안돼요, 말씀은 고맙지만 사양하겠어요. 사랑 없는 섹스는 저를 우울하게 만들뿐이니까요."
"나는 사랑이 배제되어 있다는 말은 안 했소."
"그러면 대령님의 부인은?"
"자, 이 문제만은 확실히 합시다. 내 아내는 이 대화와 아무 상관도 없고, 우리는 다시 그녀를 언급하지 않기로 합시다. 난 단지 우리들에 대해 얘기하고 싶소.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만일 당신이 허락을 한다면 나는 당신이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들 자신이 있소."
"우리 얘기를 빙빙 돌리지 말아요, 대령님. 당신은 권력이 막강한 분이에요. 당신은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항상 해왔어요, 안 그래요?"
"틀렸소. 내 위치가 나로 하여금 국가를 위해 어떤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나는 단지 그것들을 할 따름이오. 나는 군인이고, 그것을 특권이나 되는 것처럼 이용하지도 않소, 특히 개인적인 문제에서는. 나는 당신을 유혹하려고 하는 거지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오. 물론 나는 내 의도가 성공하리라 믿지.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끌리고 있으니까. 나는 당신이 마음을 바꿔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 거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데요."(pp.231-232)

대령은 화가 나 반말로 협박을 하는 것으로 자리를 파하고, 에바는 다음 날 공장에 사표를 던진다. 사랑의 감정이 막힌 사람에게도 먼저 다가

가 친밀감을 주고, 외모에 상관없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을 사랑하는 애바이지만, 권력으로 자신을 농락함은 단호하게 거부한다. 말로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애국자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하는 신사이지만 사실은 형편없는 협잡꾼이며,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성을 정복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으로 여자를 지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유형의 인간임을 간파한 것이다.

에바는 사랑하는 사람과도 싸워야 한다. 그녀의 첫사랑은 우베르또 나랑호이고, 그는 에바를 존중한다. 다른 여자애들하고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역시 성에 대해서는 편견에 사로잡혀 문제의식조차 없다. 늘 '완전한 수컷'(Hay que ser bien macho. p.65)이 되고 싶어했고, 그래서 남성다움을 과시하려 들고 남성다움에 집착한다. 상류층 폭주족 애들과 싸우던 깡패 두목 시절이나, 게릴라 대장이 되어 민중을 위해 싸우는 때나 마찬가지다. 그는 고통스런 산중 생활을 통해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는 형제애에 이르렀지만, 그는 에바의 처녀성에 대해 묻는다. 에바는, "너는 내게 줄 동정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나의 처녀성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pp.215-216)고 되묻는다. 자신은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창녀를 찾기도 하면서, '자기' 여자에겐 자기 외의 모든 관계는 수치스런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남존여비 사상에 묶인 남성 의식의 일반적인 현주소이다. 목숨을 걸고 게릴라 활동을 하는 우베르또는 자기네들의 투쟁이 다른 형태의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것이며, 언젠가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계를 누릴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때 에바는 이런 생각을 한다:

> 나는 광장에 내버려진 두 어린애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먼 옛날의 오후를 떠올렸다. 그때 이미 그는 자신을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수컷으로 자처하고 있었지만 나는 여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불행이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보호와 제약을 받아야 한다고 그는 믿었던 것이다. 그의 눈에 비친 나는

> 영원히 의존적인 존재이리라. 우베르또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갖게 된 이래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해왔고, 혁명조차도 그의 그러한 태도를 바꾸어놓을 수는 없었던 것 같다. 나는 우리들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게릴라전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그가 그의 꿈을 이룬다 할지라도 내게는 평등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았다. 우베르또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민중이란 단지 남성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우리들도 투쟁에 공헌은 해야 했지만, 우리들은 결정권과 힘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었다. 그의 혁명은 내 운명의 본질을 바꾸어놓을 수가 없고, 어떤 경우에서든 나는 내가 살아 있는 마지막 날까지 내 길은 나 혼자 개척해야 될 것이리라. 아마 그 순간 나의 투쟁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왕이면 즐기면서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내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야 행복해지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오기 전에 인생은 종을 칠 테니까. (p.218)

남자의 사랑은 원하지만 보호는 거부한다.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보다 평등이 더 소중한 걸까, 아니면 평등하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수직적 관계에서도 사랑은 성립되는가를 살펴보자. 스페인어는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쓰여지지만 존대말(usted)/반말(tú)개념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같은 나이 또래라도 장교는 사병에게 반말을 하고 사병은 장교에게 존대말을 붙인다. 장교는 사병을 '사랑'하고, 사병은 장교를 '존경'하기 때문이다. 이 규칙을 깨고 사병이 장교를 '사랑'하면 그는 제재를 받을 것이다. '사랑'이라는 코드를 풀면 '지배'가 들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교는 사병의 사랑을 위협으로 간주한다. 물론 군대에서의 이 일방통행적인 사랑은 특수한 예이고, 일반적으로 가족 사이에는 '사랑'의 언어를 쓴다. 그러나, 이번에는 언어적으로 평등해도 여전히 가부장제와 남성우월주의가 여자를 수직적 관계로 몰아넣고 참다운 사랑을 파괴하곤 한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아직도, 그들이 여자들에게 일상적으로 하는 것을 역으로 여자가 하면 매우 부적절하고 위협적인 일로 받아들인다.[12] 에바가 결혼하게 되는 롤프의

12) 앤소니 기든스(배은경 · 황정미 옮김), 『현대사회의 성 · 사랑 · 에로티시즘 -친밀

아버지 루까스는 다소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리고 적어도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남성의 일반적 의식을 반영한다:

> 루까스 까를레는 그의 아내를, 유일하게 지성을 갖추어 창조된 남자보다는 동물에 가까운 열등한 피조물로 생각했다. 여자는 이론상 동정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지만, 실제에 있어서 그의 아내는 자신을 화나게 만드는 존재에 불과했다.(pp.31-32)

그는 편리를 위해 결혼을 했다.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그의 인생 속에 부재하였다. 그는 사랑이란 문학이나 오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일상생활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여겼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하기 위해, 그리고 몇 달 후 그녀의 아름다움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프랑스의 어느 곳에서 몇 보따리의 책, 세계지도, 그리고 학위증을 가지고 온"(p.78) 자에 다름 아니었다. 그는 아내가 첫날밤부터 남편을 증오하게 만든 자였다. 에바의 대모는 "가장 불쌍한 남자라 할지라도 명령을 할 수 있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여자보다는 남자가 낫다"(p.48)고 하고 에바도 결국은 그 말이 맞다고 공감한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인간'이 되기 위해선, 음험한 특권층 로드리게스 대령과만 투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독선적인 루까스 선생, 혁명전사 나랑호와도 싸워야만 하는 것이다.

이쯤해서, 다양한 소재와 영역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까닭에 이른바 '총체 소설' 로 불리우는 이 작품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난다. 보다 간단하게 보자면, 이 작품의 도입부부터 결말에 이르기까지 에바를 중심으로 한 개인들의 사적인 삶을 전개시키는데 왜 사회의 공적인 역사가 맞물려 돌아가게 한 것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즉, 남미 한 나라[13]의 정

성의 구조변동』, 새물결, 1999. p.131.

13) 베네수엘라를 가리킨다. 작가가 오래 거주 중인 나라일 뿐만 아니라, 작품에 나오는 독재자와 그 후계자들, 반정부 소요, 열대 기후, 석유의 발견과 경제부흥,

치-역사를 추적하며 사회의 부패상을 고발하고 반독재 투쟁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소설 내지 참여 문학적 성격을 띄고 있는 이유는 공적인 영역과 개인적 영역이 동일한 문제, 동일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로서의 이사벨 아옌데의 경우, 그것은 거의 언제나 '평등한 사랑'으로 나타나며, 실천적으로는 가부장적 관행과 의식을 타파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절대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악명이 높게 된 이 '가부장'은 복의 근원이 되기보다 불행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가장 보편적으로 확립된 지배체제였다. 소설의 또 하나의 무대가 되는 오스트리아에서 학교 선생이자 한 가정의 아버지 노릇을 하는 루카스 카를레를 보자. "체벌은 교육의 한 부분이고, 피가 맺혀야 글을 배운다는 속담이 지혜로운 교육이론으로 널리 받아들여져 있던 때"(p.31)이긴 하지만, 그는 일단 매를 들면 격앙되어 자제심을 잃고 자기 학생의 팔을 부러뜨리기도 한다. 그는 공포의 규율을 집에서도 강요하여 식구들을 공황증(恐惶症)에 걸리게 하고, 이따금 아내에게는 창부에게 시키던 가학성 변태행위를 시킨다. 다시 바다 건너, 남미의 늙은 독재자는 '자비로우신 분'(el Benefactor)이라고 불리운다. 그의 독재정치는 모든 것을 잠재운다. 반대자는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처치하고, 석유가 발견되자 엄청난 국민의 재산을 가로챈다. 꼰수엘로를 거두어 준 선교사들은 그녀를 방치해두었지만 그녀의 무단 외출을 발견하고선, 무서운 얼굴로 징계한다. 그녀를 다른 몇 인디오 소녀와 함께 굴비 엮듯 묶어 '자비 자매회' 수녀원으로 보낸다. 높은 담장과 엄격한 규율로 둘러

그리고 외세와 외국자본의 개입, 쿠데타와 평화적 정권이양과 교체, 게릴라의 활동 등등이 정확하게 베네수엘라의 역사와 일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비센테 고메스 시대(1908-15, 1922-29, 1931-35)로부터, 로페스 콘트레라스 장군(1936-40), 이사이아스 메디나 장군(1941-45)을 거쳐 민·군 합동쿠데타에 의한 로물로 베탕쿠르 임시정부(1945-47), 로물로 가예고스 민선 대통령(1948. 2월-11월), 델가도 군사평의회장의 암살과 페레스 히메네스 장군(1951-57), 군·관·민 합동쿠데타에 의한 민주주의 회복과 게릴라의 준동(1958-1960년대)으로 이어지는 시대의 특징이 축약적으로 작품에 반영되었다. (참고: 강석영, 『라틴아메리카史』 하권, 대한교과서(주), 1996. pp.407-424.)

싸이고, 달이 가고 해가 가도 아무런 변화를 맛볼 수 없는 그 곳에서 꼰수엘로는 신을 폭군으로 이해한다.

이렇듯, 가부장적 의식은 가정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회사, 교회, 군대, 정치계 등등, 모든 곳을 사랑 대신에 권력으로 장악하며, 반드시 남성만이 그러한 의식을 지닌 것도 아니고, 남성은 그의 피해자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난 세기이래 인류는 이 오래된 정신적 질병과 싸우기 시작했고,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적 권력 해체! 여성해방 쟁취!'[14]를 소리 높여 외치고, 「만약 네가 내 심금을 울려줄 수 있다면」의 오르뗀시아는 굴종의 삶을 살지만, 『에바 루나』의 인물들은 반란을 일으킨다. 공포대왕 같이 잔인한 루카스 카를레에게 어느 날 장남은 주먹으로 응징을 하고 떠나고, 그의 다섯 학생들은 그를 암살하여 나무에 매달고, 남편에 대한 공포로 자폐증을 보였던 아내는 남편의 시신 앞에서 기쁨을 감추기 위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역시 아버지를 살해하고 싶은 욕망을 가졌던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롤프에게 그녀는 "만일 그 애들이 하지 않았다면 언젠가 우리들 스스로 그 일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한 게 오히려 기쁘다."(p.80)고 한다. 그녀는 운명에 순응하며 속으로만 끙끙 앓는 유형이 아니었다. 아들이 다 끝난 일이니 잊자고 하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아니다, 얘야. 반대로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해."(p.80)라고 가르친다. 마찬가지로, 작품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듯, 시민과 학생과 언론은 실제 역사에서 가부장적인 독재자에 맞서왔던 것이다.

4. 평등한 사랑

사랑은 평화를 낳고, 미움은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

14) 여성해방연대란 기구의 슬로건이다. 홈페이지는 http://www.feminist.or.kr.

다. 그러나 남녀관계에서는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도 투쟁이 필요하다. 인간의 의식은 순수한 사랑을 할 정도로 진보를 이루지 못하여서, 아직 사랑에도 권력관계를 개입시킨다. 미셸 푸코가 지적하듯, 권력은 가장 하부단위에서부터 발생하여 위로 파급된다.[15] 그리고, 권력, 혹은 더 단순히 말해 힘은 흔히 착취와 억압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착취와 억압은 언제나 굴종을 강요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감 · 분노 · 복수심 따위의 부정적 감정의 연쇄반응을 불러일으킨다.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16] 그럴 힘이 없는 약자는 저주심, 한(恨), 울화증 등 자기파괴적인 감정으로 대응을 한다. 과거와 현재를 통해 이 악순환을 분명히 보면서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기보다 야수에 가까운지 여전히 권력-폭력을 탐한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미화한다. 절대권력자일수록 사랑의 명분은 커진다. 신으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았다는 고대의 왕부터, '짐이 곧 국가'라거나 백성을 계몽하기 위해 노심초사한 근대의 왕을 거쳐, 현대의 군사 · 민간 · 공산 독재자들에 이르기까지 '사랑'은 공통의 이념이다. 스페인이 아메리카를 정복한 까닭도 '미개한 족속'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은 신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아빠도 엄마도 선생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울릴 것이다'라는 스페인 속담은 정말 쓰임새가 넓다.

권력-폭력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일까? 특히 남성은 권력 지향적인 존재인가?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우베르또 나랑호의] 성차별 의식은 권력의 표현일까? 이 질문들에 대해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역순

15) 푸코는 권력은 밑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본다.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뉘어진 이원성이 아래로 내려와 사회 조직의 깊숙한 부분에까지 파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생산 기구, 제한된 그룹이나 제도들 안에서 형성되어 작용하는 다양한 역학관계가 사회 전체의 이분법적 분리를 떠받친다는 것이다. (미셸 푸코(박정자 역), 『성과 권력』, 인간사,1989, pp.136-137)

16) 푸코는, 권력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게 마련이라고 하며, 보다 복잡한 권력과 반항의 역학관계를 파고든다. (같은 책, pp.138-139)

으로 살펴보자. 작가는 멜레시오의 입을 통해, 게릴라 사령관 우베르또가 만약 혁명에 성공한다면 규칙을 바꾸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하지 않고 똑같은 원리에 의해 통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권위, 권력투쟁, 탐욕, 압제는 언제나 같다(p.250). 여자를 '손에 넣으면' 지배하려 드는 것이나 권력을 '손에 넣으면' 휘두르는 것은 같은 정신의 발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관행을 바꾸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가령, 전통적으로 여성을 무시하고 푸대접하며 온갖 심부름을 다 시키던 우리나라 남성들이 중남미에서처럼 여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차나 엘리베이터에 먼저 태운다고 할지라도, 그런다고 여권을 존중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온 중남미는 마치스모(machismo)로 유명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남성본위 사회였다면, 중남미는 남성우월주의 사회라는 차이가 있을 뿐, 남존여비 사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 "국민은 정직을 경멸해. 왜냐하면 그건 여자들이나 성직자들에나 필요하지 괜찮은 남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장식품이니까"(p.129)라고 생각하는 최고통치자에서부터, 일을 하는 남자는 부엌에 드나들지 않고, 많은 남자들이 가부장적인 생각의 또 다른 표현으로 무신론자 행세를 하고, 미사를 드리면서도 무릎을 꿇는 것은 남자가 할 짓이 아니라고 믿는 남자들이 지배하는 가부장적인 체제에선 가정도, 교회도, 정치도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공간이 된다.

다음, 남성은 권력 지향적인가에 대해, 작가는 남성인물 몇을 통해 모든 남성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과, 이상적인 남성의 역할을 제시한다. 리아드 알라비는 얼마나 훌륭한 이웃·남편·어른·남성인가. 롤프 까를레는 또 얼마나 감수성이 깊고 낭만적이며, 착한 아들이고 사촌이며, 뛰어난 기자이고 연인인가. 남미로 진작에 이주해온 롤프의 삼촌 루뻬르뜨는 언제나 명랑하고 활기찬 인물이며, 한량 같은 글쟁이인 아라베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적절하게 어울린 인물이다. 이들은 나름대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정신적 자질 면에서 적지 않은 공통점이 발견된다. 첫째, 이들은 가부장적이지 않고 민주적이어서 누구를

지배하려들거나 강압을 가하지 않는다. 둘째, 사랑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의 약점을 감싸주고 이해하려고 한다. 셋째, 대체로 폭넓은 감수성을 지니고 인생의 쾌락을 즐길 줄 안다. 넷째, 유능하고 건실한 생활인이자 건전한 판단력과 결단력을 지닌 남자이기도 하다. 특히, 리아드와 롤프의 경우는 각각 신체적 불구와 정신적 상처를 꿋꿋이 딛고 일어선 역경의 승리자들이다. 작가는 또한 여성인물들이 남성 인물들을 통해 인생의 귀중한 조언을 듣게도 하고, 필요한 여러 가지를 배우게도 하며, 쾌락을 누리게 하고,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의 동반자가 되게 함으로써 남성 일반이 투쟁의 대상의 아니며, 오히려 사랑의 대상임을 역설한다.

이상적인 남성상이 가부장적이지 않은 이런 남자들이라면, 여성인물들을 통해서는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가? 첫째, 상호관계에서의 친밀성이 강조된다. 여성인물들은 서로가 쉽게 마음 문을 열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며, 감정을 토로하고 상호 의지하는 친밀한 관계가 된다. 남자들의 관계가 곧잘 수직적이 되는 데 반해, 이들은 서로간의 여러 차이 - 나이, 역할, 직업, 성숙도 등-를 넘어 감정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기에 언제나 쉽게 교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되고자 하며, 정신적으로 좌절하거나 굴종하지 않고 무한히 인내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사랑을 주는 삶을 지향한다. 어머니 꼰수엘로, 요리사 할머니 엘비라, 성전환 여성인 미미(멜레시오)가 에바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물들이다. 어머니와 엘비라는 평생 종살이에 가까운 하녀 생활 속에서도 인간적 품위와 따스함, 꿈을 잃지 않는다. 어머니는 죽어가면서도 의연하게, "얘야,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단다. 사람은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어야 죽는 것이란다. 네가 나를 잊지 않으면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p.46)라고 말해줌으로써 에바의 마음 속에서 불멸의 존재가 된다. 엘비라는 수시로, "널 찾아오려면 너무 많이 걸어 힘이 들어. 하지만 너를 안 보면 더욱 힘이 드니 오게 되고 마는구나. 나는 매일 하나님께 빌어, 네게 인생의 바탕을 주십사고,

그리고 나에겐 너를 계속 가까이할 수 있도록 건강을 달라고 한단다."(p.104)고 격려해준다. 이 두 여인보다 미미는 더욱 적극적으로 원하는 바를 성취하며,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에바에게 좋은 모델이 된다. 그래서 에바는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자기가 원하는 글쓰기에 전념하여, 결국 전업작가가 된다. 여성의 경제적인 독립은 이사벨 아옌데가 특히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17]

여성인물들이라고 항상 좋게만 그리는 것은 아니다. 심술궂은 주인집 여자나,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일하기도 거부하는 리아드의 부인 술래마 등이 그러한 예이다. 에바를 갈취하는 대모, 포주 일을 주업으로 한 라 세뇨라의 부정적인 면을 짚기도 한다.

그러나 또한, [남성 못지 않게] 여성의 성적 자유와 쾌락이 중요하다는 것을 과감하게 강조하기도 한다. 부르헬 숙모처럼 실수로 부정을 저지를 수도 있고, 그 두 딸들처럼 사촌 롤프와 혼전섹스를 질탕하게 즐길 수도 있고, 남성 성기를 종류별로 고찰하는 자유가 있음을 선언한다.

남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이러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와 경제적 독립 못지 않게, 정신적 단련과 성숙도 필요하다. 그것은 보다 큰 덩어리의 운명과 자신에 대해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에바는 출생과 성장의 어두운 배경에 대해, "기억에 내장된 정글의 한 줌 바람과 함께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지 못했다"(p.9)고 선언하고, 열일곱 무렵에는 거울 앞에서 영

17) 작가는 대담에서 이렇게 말한다: "난 에바 루나의 입을 통해 여성의 입장에 대해 말하고 싶은 걸 전부 말했어요. 그러니 에바는 아주 강한 여성이지요. 아주 자연스럽게 실용적인 페미니즘을 담았어요. 나 개인적으론,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듯, 여러 해 동안 거꾸로 된 마치스모를 겪은 셈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생활비를 벌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에요. 나는 아주 일찍부터 일을 했고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자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또한 에바 루나가 누리는 자유의 바탕이죠. 일찍부터 밥벌이를 배우는 것이에요."(Celia Correas Zapata, op.cit,. pp.100-101.)

화나 잡지에 나오는 완벽한 미인들과 자신을 비교하길 중단하는데, 왜냐하면 단순히 "내가 그러길 바라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기로 결정"(p.176)했기 때문이다. 질투심의 포로가 되었던 경험으로부터는 누군가를 소유한다거나 누구에게 속한다는 열망에 대해 자유롭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단련하고, 불가능한 사랑의 감정에 언제까지나 매달리기보다는 일과 공부를 통해 인생을 폭넓게 사는 지혜를 익히며, 그리하여 삶의 모든 풍파 속에서 운명을 스스로 끌고 나가는 성숙한 인간이 되어 간다.

에바의 성숙은 그녀의 최종적인 선택에서 확인된다. 에바는 우베르또를 사랑하였고 오랜 세월 동안 그와의 낭만적인 사랑 ,-즉, 그녀의 사랑에 의해 그가 개과천선하는-, 을 환상 속에서 키워왔지만, 현실에서 만나는 그는 여자와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여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감정을 열어 보이길 수치스럽게 여기며, 여자의 욕구와 감정에 둔감하기 때문에 거듭 실망을 하게 된다. 반면에, 롤프는 에바에게 불행했던 시절의 감정을 고백하거나, 그 곁에서 밤을 새며 침묵하거나, 사랑의 쾌락에 빠질 줄도 아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남성이다. 에바가 롤프를 배우자로 선택함은 그가 사랑은 친밀하고 평등한 관계임을 알기 때문이다. 사랑을 지배관계로 이해하는 우베르또가 선택의 대상이 되지 못함은 당연한 일이다. 감정적으로 평등하지 않은 관계는 억압과 그에 따른 반항으로 인해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며, 결국은 사랑을 파괴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에바는 사랑을 하였으나, 우베르또는 스스럼 없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 대신에 딱딱한 가부장적 권위로 사랑을 질식시켰으며, 에바는 여성을 평등하게 여기는 롤프를 선택함으로써 사랑의 승리를 쟁취한 것이다. 한 남자에게 매인 것만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보다 인간다워지고 관계의 폭이 넓어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것이다. 에바는 이제 결혼함으로써 우베르또 대신 롤프라는 남자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 있는 관계 중의 중요한 한 가지를 얻

은 것일 뿐이다. 소설의 결말은 에바가 여전히 자유로운 상상을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평등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타자의 개별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개방되고 평등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협상되는 것이라고 앤소니 기든스는 정의를 내린다.[18] 평등한 관계에서 사랑은 가부장적으로 네가 정해주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네가 채워주는 것이며, 감정의 상호작용을 통해 너의 행복과 나의 행복이 일치됨을 확인하는 것이다. 행복한 사랑이란 엄숙한 것이 아니며, 반드시 완벽하거나 거창해야 되는 것도 아니며, 내가 가진 욕구를 너도 가질 권리가 있고, 너는 나와는 다르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5. 맺으며

주지하다시피,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두 이념 위에 서 있다. 누구든지 자유롭고 평등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확실히 민주국가의 시민은 그것들을 기본권으로 누린다. 그러나 얘기가 여자로 가면 차별의 양상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지구상의 많은 곳에서 여자의 자유와 평등은 무시되거나 아니면 조건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그러므로 페미니스트들은 동등한 권리를 요구해 왔고, 그것은 평등하고 풍요로운 사랑을 위한 투쟁이었다. 이것은 개인간의 문제이면서, 아직까지 완전히 풀리지 않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문제이다.

착취와 굴종이 「만약 네가 내 심금을 울려줄 수 있다면」의 두 축이라면, 사랑과 투쟁은 『에바 루나』의 양대 축을 이룬다. 그런데 어느새 전자의 관계 방정식은 흘러간 시대의 유물이 되어 가고, 에바 루나 식의 사

18) 앤소니 기든스, 앞의 책, p.15.

랑이 승리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모니카 사빠따가 『영혼의 집』을 가리켜, 가부장적 사회를 전복시키는 '파계'의 규칙을 제공하고 페미니즘의 규칙으로 중남미 사회를 재구조화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은[19] 『에바 루나』에도 유효할 뿐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는 느낌을 준다. 우리 시대의 발전 정도에 따라 나라간에 큰 격차가 있고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은 OECD 국가에서는 오르뗀시아는 예전 세대의 모습이고, 에바 루나는 현대 여성의 모습이 뚜렷하다. 평등을 위해 싸운다더니 이미 평등을 넘어서 여성이 우세한 위치에 서는 경우가 많아졌다. 경제적 독립과 함께 많은 여자들이 그녀들이 원하는 평등하고 친밀한 관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남자들을 시대의 낙오자처럼 버리고 떠나는 것이다.

오늘날의 여성은 열정적 사랑과 낭만적 사랑을 넘어 합류적 사랑(confluent love)으로 나아간다. 합류적 사랑은 능동적이고 우발적인 사랑이며, 그래서 낭만적 사랑 복합체가 가진 '영원한', '하나뿐이며 유일한' 특성과 어긋난다. 오늘날 '별거하고 이혼하는 사회'는 합류적 사랑이 부상하게 된 원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의 효과로 나타난 것이다.[20] 이것은 감정적인 기브 앤 테이크에 기초하기 때문에 평등은 선취되어 있다. 평등이 깨어지면 결합관계도 끝이 난다. 관능의 기술도 결혼 관계의 핵심이 된다. 친밀성이 강조되는 이 사랑의 형태에서 여성은 남성을 앞장 서가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많은 남성은 이 새로운 형태의 사랑에 적응하지 못해 쩔쩔 매고 있다. 앤소니 기든스의 말을 빌리자면, 남성들이 순수한 관계가 아닌 외적인 것에 의해 지탱되는 관계나 자기 외적인 것에 의해 지탱되는 자아정체성에 안주해 옴으로써 결과적으로 감정적, 정서적으로 취약해진 반면, 기존의 제도들로부터 억압받아온 여

19) 전기순, 「이사벨 아옌데: 페미니즘과 경이적 사실주의의 조우」에서 재인용(『세계의 소설가 I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기획, 한국외대출판부, 2001, p.287)

20) 앤소니 기든스, 앞의 책, pp.116-117.

성들이 오히려 사적 영역 속에서 고유한 친밀성의 세계를 발전시켜 왔다.[21] 이미 가정에서부터 가부장적 권위를 상실해 가고 있는 남성들은 이제 조화로운 남녀관계를 위해 평등성에 입각한 인간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Allende, Isabel, 『Cuentos de Eva Luna』, Plaza & Janés Editores, S.A., Barcelona, 1989.

_____, 『Eva Luna』, Plaza & Janés Editores, S.A., Barcelona, 1988.

Correas Zapata, Celia, 『Isabel Allende - Vida y espíritus』, Plaza & Janés, Barcelona, 1998.

강석영, 『라틴아메리카史』 하권, 대한교과서(주), 1996.

성경(한글판 개역 성경전서), 대한 성서공회, 서울, 1962.

이순주, 「라틴아메리카 민주화 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증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 1집, 부산외대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1999)

전기순, 「이사벨 아옌데: 페미니즘과 경이적 사실주의의 조우」 (『세계의 소설가 I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기획, 한국외대출판부, 2001.

존 그레이(김경숙 옮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친구미디어, 서울, 1993.

앤소니 기든스(배은경·황정미 옮김),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새물결, 1999.

21) 앞의 책, p.16

미셸 푸코(박정자 역), 『성과 권력』, 인간사, 1989

http://www.feminist.or.kr.
http://www.nkino.com/moviedom/review_movie
http://domingo.pe.kr